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I - HOUSE



### 사명

다양한 세계와의 지적 대화, 정책 연구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52년, 저널리스트 마쓰모토 시게하루는 미국의 자선활동가 존 D. 록펠러 3세 등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했었다는 취지의 반성하여 민간 비영리단체인 ‘국제문화회관’을 설립했습니다. 국제문화회관은 날마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왼쪽 위부터) 네루 총리, 발터 그로피우스, 가야트리 스피박(사상가), 존 홀/마리우스 앤센/에드워드 O. 라이샤워/마쓰모토 시게하루, 엘리너 루스벨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킹/아베 코보/다케미쓰 도오루, 오가타 사다코, 노구치 이사무, 칸나 파라고, 안도 다다오, 빌 비올라 (예술가)

## WHAT IS I-HOUSE?

### 국제문화회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International House of Japan)은 미국 록펠러 재단을 비롯한 국내외 단체와 개인 여러분의 지원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업 이래 각계에서 활약하는 전세계 학술 연구자, 예술가, 경제인, 저널리스트 등의 활동 거점이자 교류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1953년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입안자인 엘리너 루즈벨트, 1954년에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발터 그로피우스, 1957년에는 국빈으로 방일한 인도의 네루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도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인 오가타 사다코,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세계의 지혜를 접하는 인적 교류를 비롯해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 육성, 정책 연구 및 제언 등의 싱크탱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회관의 시설은 그 설립 배경부터 일반 상업시설과는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의나 회합 공간부터 숙박, 레스토랑, 도서실에 이르기까지 International House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겸비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I-House”라는 친숙한 약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PROGRAM ACTIVITIES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적 허브로서

국제문화회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적 허브 역할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국제 관계 및 지역 연구, 지정학, 사회 시스템, 거버넌스, 이노베이션, 문명론 및 철학, 예술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경학연구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 주일 캐나다 대사 세미나”



예술과 지리경제학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하세가와 유코와 스즈키 가즈토



세계적인 예지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일한 사상가 안토니오 네그리



2020 미일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정원 전시 “여행은 집 –The Journey Itself Home”



## 세 거장에 의한 일본 모더니즘 건축의 걸작

1955년에 준공한 고즈넉한 동관은 일본 모더니즘 건축의 세 거장인 마에카와 구니오, 사카쿠라 준조, 요시무라 준조가 공동으로 설계한 유일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원과의 조화를 꾀한 나무 창틀이나 베란다의 난간 블록 등 당시의 디자인이 많이 남아 있어 지금도 건축 팬의 성지입니다.

2004년에 내진 강화를 목적으로 건물을 전면 재건축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재평가되어 외관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부를 개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후 명건축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적합한 재탄생을 한 좋은 예로서 1956년에 이어 두 번째의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2007년)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국가 등록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요시무라, 마에카와, 사카쿠라.  
국제문화회관의 건물에는 그들의 경험이나  
센스가 훌륭하게 결실을 맺고 있다.



국립서양미술관의 설계를 위해 방일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제자인 마에카와,  
사카쿠라의 안내로 회관을 방문.(1955년)





건물 뒤편에 있는 일본정원은 1930년 당시 이곳에 저택을 가지고 있던 이와사키 고야타가 일본을 대표하는 교토의 조경가 중 한 명으로 “우에지”라고 알려진 7대째 오가와 지헤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모모야마 시대 또는 에도 시대 초기의 흔적을 간직한 근대 정원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10월에 미나토구의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

### 숙박

싱글, 더블, 트윈 등 다양한 크기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지의 동쪽에 위치하는 본관은 모든 객실이 녹음이 우거진 일본정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 도서실

일본 및 국제관계에 관한 영문 출판물을 중심으로 약 27,000권의 서적, 약 400 타이틀의 잡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일본 연구자나 전문가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과 개인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 다이닝

레스토랑 SAKURA에서는 일본정원을 바라보며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정통 프랑스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티 라운지 “더 가든”은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등석입니다. 조식이나 런치, 경식, 디너까지 여리 상황에 맞게 이용해 주십시오.

### 연회장, 회의실, 정원

소규모에서 200명까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연회장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녹음에 둘러싸인 개방적인 홀은 국제회의, 강연회, 회식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회원과 회원이 소개한 게스트, 도서실은 회원, 숙박 게스트, 정원은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왼쪽 위/숙박시설, 왼쪽 아래/도서실, 오른쪽 위/레스토랑 SAKURA, 오른쪽 아래/연회장

## MEMBERSHIP

### 입회 및 기부에 대하여

국제문화회관은 지적이고 진취적인 기개가 있는 회원분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친목회와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시고 있는 분들에 의한 강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활동 취지에 찬동하시는 분은 입회를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국제문화회관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며, 세법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특정, 기부에 관한 상담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웹사이트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제도에 대하여  
[www.i-house.or.jp/eng/members/](http://www.i-house.or.jp/eng/members/)



기부에 대하여  
[www.i-house.or.jp/eng/donate/](http://www.i-house.or.jp/eng/donate/)



문의(회원부)  
03-3470-9115 (평일9:00~17:00) [member@i-house.or.jp](mailto:member@i-house.or.jp)

### 공익재단법인 국제교류센터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우 106-0032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5-11-16  
TEL 03-3470-4611(대표) FAX 03-3479-1738  
<https://ihj.global>



#### 전철로 오시는 경우

도에이 오에도선 아자부주반역(7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쿄메트로 난보쿠선 아자부주반역(4번 출구)에서 도보 8분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롯폰기역(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